

마산 스테이크 창원 와드 청소년들의 “표준 복장 패션쇼”

패션쇼라고 하면 으레 화려한 조명과 감각적인 음악, 그리고 최신 유행을 선도하는 옷들이 떠오른다. 하지만 마산 스테이크 창원 와드 청소년들이 준비한 ‘표준 복장 패션쇼’는 다르다. 화려한 조명 대신 모델들의 환한 미소, 그리고 최신 유행의 옷 대신 단정하고 정갈한 표준 복장이 무대를 빛냈다. 표준 복장의 아름다움을 알리기 위해 창원 와드 청소년과 역원들이 아심차게 준비한 패션쇼의 현장으로 함께 가 보자.

봄 기운이 느껴지는 싱그러운 음악과 함께 멋지게 차려입은 청남 청녀가 등장했다. 깔끔한 흰색 와이셔츠에 넥타이를 맨 청남이 꽃잎을 뿌리자 노란 색 윗옷에 예쁜 치마를 입은 청녀가 그 밑에서 빙그르 돌았다. 귀엽고 재미있는 모습에 관객들의 박수가 터졌다. 잠시 후, 여름이 연상되는 경쾌하고 활기찬 음악이 흘러나왔다. 그러자 무대에 등장한 청소년들의 워킹도 발랄하게 변했다. 고개를 흔들며 리듬을 타고, 여유롭게 웃는 모습이 어느 모델 못지않았지만 여름이라고 하면 흔히 떠올리는 짙고 노출이 심한 옷이 아니라 적당한 길이의 소매가 달린 윗옷과 무릎을 덮는 치마, 그리고 반팔 와이셔츠와 단정한 바지를 입었다는 사실이 다른 점이었다. 관객들은 그 단정하고 깔끔한 모습에 또 박수와 함께 환호를 보냈다. 다음은 가을의 차례. 관객들은 청소년들이 어떤 옷을 입고 나올까하는 기대감에 눈을 반짝였다. 분위기 있는 음악이 흐르면서 등장한 청소년들은 또다시 관객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멋진 모습이었다. 청녀는 길게 내려오는 윗옷과 긴 치마로 가을의 정취를 뽐냈고, 단정한 정장 복장을 한 청남은 한 손에 책을 들고 한껏 분위기를 잡았다. 그리고 뒤이어 뿌려진 낙엽까지, 그야말로 가을의 서정이 느껴지는 순간이었다. 마지막은 사랑스러운 음악과 따뜻한 의상이 함께 한 겨울 워킹. 관객들은 두툼한 목도리를 두르고 코트를 걸친 청소년들을 향해 신나는 박수와 웃음으로 화답했다.

창원 와드 청소년들이 ‘표준 복장 패션쇼’를 계획하게 된 것은 끊임없는 노력과 연구 덕

분이었다. 전국의 다른 청소년들과 마찬가지로 창원 와드 청소년들도 토요일이면 학원이나 친구들과 모임으로 무척 바빴다. 그런 와중에도 열세 명의 청남들과 열 명의 청녀들은 매주 빠지지 않고 토요일 상호향상모임에 참석했다. 그러면서 하게 된 고민이 ‘조금 더 재미있는 활동을 할 수 없을까?’ 였고, 그때부터 청남 청녀 회장단과 청소년들은 머리를 맞대고 연구하기 시작했다. 창원 와드 청녀 회장인 정의순 자매가 청녀 개인 발전 기록부 중 ‘선택과 책임’ 부분의 가치관 활동을 살펴보게 된 것도 그 연구 때문이었다. 그때 정 자매는 다음과 같은 구절을 읽게 되었다.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를 지침으로 활용하여 여러분이나 다른 청소년들이 주님의 표준에 따라 생활하도록 돕기 위해 지도자들의 지시에 따라 토론 그룹, 패션쇼, 또는 다른 행사를 조직하거나 참여한다.” 구절 속에서 정의순 자매의 눈길을 끈 것은 바로 ‘패션쇼’라는 단어. 한창 패션이나 외모에 관심을 가지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그들이 좋아하는 패션쇼를 하되, 표준 복장과 연관 지어 활동을 하면 재미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다. 하지만 평소에도 늘 입는 표준 복장으로 무슨 패션쇼를 하느냐는 청소년들의 회의적인 반응이 잇따랐다. 무릎을 덮는 치마를 입고, 소매가 달린 옷을 입는 게 ‘촌스럽고, 유행에 뒤처지는 행동으로’ 보이는 요즘이기에 청소년들의 반응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었다. 창원 와드 청남 청녀 회장단도 청소년들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했기에 강권하기 보다는 청소년들



스스로가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 그러자 청소년들이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다. 서로 토론하고 의견을 조율하는 가운데,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활동이라서 신선하고 재미있겠다는 이야기들이 오갔고 결국 멋진 패션쇼를 펼치자는 데 마음을 모았다.

그때부터 창원 와드 청소년들은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졌다. 청남 청년 회장단은 표준에 대해서만 가르쳤을 뿐 대부분의 모임 준비는 청소년들이 직접 했기 때문이다. 일단 패션쇼에서 입을 옷을 구하는 것부터가 힘든 일이었다. 청소년들은 자신들이 가진 단정하고 예쁜 옷을 들고 왔고, 부족한 것은 교회 회원들에게 빌리기도 했다. 그렇게 해서 모은 옷들 중에서 사계절이라는 테마에 맞게 옷들을 골라냈다. 계절의 느낌에 따라 색을 맞추고 상의와 하의를 조화롭게 고르는 동안 청소년들의 마음속에는 '표준복장 패션쇼'에 대한 열정이 싹트기 시작했다. 옷을 고른 다음에는 워킹 연습에 들어갔다. 자신들이 입을 옷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재미있는 동작과 연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된 청소년들은 돌씩 짝을 이뤄 틈날 때마다 아이디어를 교환했다. 관객들 앞에서 무대를 누빈다는 것이 두려운 일이라는 했지만, 청소년들은 서로를 격려하고 도우며 차근차근 패션쇼를 준비했다. 청남 청년 회장단과 창원 와드 회원들은 그런 청소년들을 위해 우정의 모임 등을 계획해 패션쇼를 성황리에 펼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었다. 그렇게 3주가 지났다.

3주 동안의 준비와 연습이 결실을 맺은 패션쇼 무대의 마지막에서 고등학교 3학년인 김연정 자매는 창원 와드 청소년들을 대표해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전했다. "우리는 복장과 외모를 통해 육신이 얼마나 중요함을 알고 있음을 주님께 나타내 보일 수 있습니다. 또한 복장과 외모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것을 나타내 보일 수 있습니다. 옷 입는 방식은 우리가 진정 어떠한 사람인가를 그대로 나타냅니다. 몸가짐을 깨끗이 하고 단정하게 입을 때, 성신이 함께 하며 주위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습니다. 저희 청소년들에게는 단정한 복장에 관한 표준이 있습니다. ... 우리는 이러한 표준들을 지키고 있고, 앞으로도 지킬 것이며, 또한 이러한 표준을 지킴으로써 우리 몸을 지키고 성전 엔다우먼트를 받을 준비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김 자매의 메시지는 비단 패션쇼를 관람한 회원들에게만 전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산 스테이크의 모든 청소년들, 나아가 전국의 모든 청소년들에게 전하는 메시지였고,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간증이였다. 또한 무엇보다도 패션쇼를 통해 표준복장의 중요성을 알게 된 창원 와드 청소년, 자신들에게 전하는 메시지였다.

창원 와드 청남인 이성관 형제는 "평소에 표준복장을 하는 것이 매우 힘들다고 생각했는데, 패션쇼를 통해 어렵고 힘든 것

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표준복장이 고리타분하고 딱딱한 것 같다고 생각했던 청년 서란희 자매도 "패션쇼를 통해 표준복장으로 얼마든지 예쁘게 옷을 입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라고 말했다. 청년 회장단으로서 패션쇼를 준비하는 청소년들을 돕고 격려했던 신지혜 자매는 다음과 같이 간증했다. "열심히 준비하는 청소년들을 지켜보면서 우리 청소년들의 표준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를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회장단들도 한 번 더 주님의 복음과 표준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청소년들이 표준복장에 관하여 가르침을 서로 주고 받는 패션쇼는 참으로 아이디어가 좋았다고 생각합니다."라는 마산 스테이크 회장단 제1보좌 김익수 회장의 말처럼 창원 와드 청소년들의 '표준복장 패션쇼'는 아이디어가 돋보였던 상호향상모임이었다.

쇼는 끝났다. 모든 쇼가 그렇듯이 끝난 후의 무대는 쓸쓸하다. 그러나 표준복장 패션쇼가 펼쳐진 그곳은 주님의 영이 고스란히 남아 있다. 그리고 패션쇼를 통해 한층 더 성장한 청소년들의 신앙과 간증이 무대 곳곳에 배어 있다. 무대를 떠나며 청남 배성혜 형제가 남긴 마지막 말을 통해 훌륭한 상호향상모임이 청소년들에게 얼마나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지 알 수 있다.

"... 앞으로도 계속 단정하고 표준적인 복장을 하겠습니다."

■ <기사, 사진 제공: 김민정 기자>



세대를 잇는 행복의 다리

전 주 스테이크 전주 와드의 박성률 감독과 송창해 자매 집에 들어서면 제일 먼저 메주가 눈에 들어옵니다. 도심 속 가정집에서는 좀처럼 찾아보기 힘든 메주가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 모습은 정겨움과 함께 포근함을 느끼게 합니다. 그 메주만큼이나 정겹고 고소한 사랑을 뿜어내는 박성률 감독의 가족은 삼대가 함께 모여 모두 일곱입니다. 집안의 제일 큰 어른은 할아버지 박정주 형제와 할머니 이춘매 자매입니다. 그리고 박성률 감독과 아내인 송창해 자매가 허리를 든든히 받치고 있습니다. 한의사가 꿈이라는 큰딸 경연이와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는 주영이, 그리고 춤과 노래로 끼가 넘치는 막내 세연이는 집안의 웃음과 즐거움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모든 식구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월요일 가정의 밤 시간이 되면 박성률 감독 집은 시끌벅적 해 집니다. 할아버지부터 막내 손녀까지 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고, 또 즐겁게 활동을 하는 모습은 세대를 초월한 행복을 보여줍니다.

새해의 첫 월요일이었던 지난 1월 7일에도 가정의 밤은 열렸습니다. 구원의 계획에 대한 박성률 감독의 공과는 쉽고 재미있습니다. 부모님과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입니다. 특히 경연이와 주영이, 그리고 세연이의 이야기를 많이 들을 수 있도록 공과를 합니다. 그래서일까요, 어려운 질문에도 척척 대답하는 세 명의 아이들은 의젓해 보이니까지 합니다. 둘째 주영이는 “아빠의 공과가 재미있다”고 말하며 방긋 웃습니다.

그래도 어디 활동만 할까요. 공과가 끝나고 활동이 시작된다는 말에 아이들의 눈이 일제히 반짝이고 활기 넘칩니다. 덩달아 할아버지와 할머니도 좋아합니다.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경연이와 주영이가 바이올린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자랑하기 위해서입니다. 두 대의 바이올린에서 울리는 음이 합쳐져서 하나의 아름다운 선율로 변하는 모습은 흡사 화목한 박성률 감독 집을 보는 것 같습니다. 막내 세연이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여섯 살짜리 이 재간둥이는 그동안 갈고 닦은 춤, 이른바 ‘텔미



한지 공예 활동을 하는 박성률 감독 가족과 조카인 윤현정 자매(오른쪽에서 두 번째), 윤경민 형제(오른쪽에서 네 번째)

댄스’를 선보입니다. 양증맞은 손으로 이리저리 허공을 휘젓는 모습이 진짜 가수 못지않습니다. 다른 가족들의 박수에 신이 났는지 평소보다 더 신나게 춤을 추는 세연이와 그런 세연이를 보며 즐거워하는 가족들의 얼굴에 웃음꽃이 활짝 핀다. 장기자랑을 끝낸 후 엄마가 준비한 한지 공예를 합니다. 주로 활동을 담당하는 송창해 자매는 다양한 연령대의 식구들을 고려해서 매주 세

심하게 준비합니다. 오늘의 한지 공예도 그런 고민 끝에 나온 활동입니다. 각자 컵받침, 쟁반, 꽃병을 만들면서 서로의 작품을 칭찬하고 도와주는 세 명의 아이들뿐 아니라 할아버지와 할머니도 집중해서 열심히 만듭니다. 송창해 자매는 “아빠의 좋은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가족이 모두 모일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가정의 밤을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아빠인 박성률 감독은 교회에 다니던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에게서 가정의 밤을 통해 복음에 대해 배웠기 때문에 가정의 밤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안다고 말합니다. 또한 “가정의 밤을 통해 가족 간의 사랑을 나누고 대화를 나누고 부모 자녀가 함께 경전을 읽고, 함께 기도하며, 간증을 나누고 서로의 재능을 보여주는 것이야말로 하나님 아버지의 훌륭한 계획”이라고 간증을 전합니다.

교회와 좀 더 가까이 살기 위해서 이사까지 했다는 박성률 감독의 집은 마당이 너른 단독주택입니다. 덕분에 전주 와드 회원들이 수시로 찾아와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월요일 가정의 밤 시간에도 한 달에 한 번은 다른 가족과 합동 가정의 밤을 합니다. 그때마다 마당에는 숯불이 올라가고 바비큐 파티가 열립니다. 함께 가정의 밤을 하고 싶은 가족이 있으면 언제든지 환영한다고 말하는 박성률 감독과 송창해 자매의 웃는 얼굴에서는 마음의 넉넉함이 느껴집니다. 티 없이 자라나는 아이들과 인자한 모습으로 가족을 챙기는 할아버지와 할머니에게도 마찬가지로 행복이 함께 합니다. 오랜 시간 묵혀야 제 맛인 메주처럼 박성률 감독과 그 가족들의 사랑과 행복은 하루하루 맛있게 익어갑니다. ■

〈기사, 사진 제공: 이나나 기자

“유일하고 참된 살아있는 교회를 ... 온 땅 위에 세우기 위해”

모두가 집으로 돌아가는 늦은 저녁 시간, 불을 환히 밝히고 모임을 갖는 사람들이 있다. 각자 직장에서 업무를 마치고 모이기에 피곤할 법도 하지만 참석된 사람들의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하다.

한국 공보 위원회 모임. 그들이 참석한 모임의 이름이다. ‘각종 활동 사항을 널리 알림’이라는 뜻의 단어 ‘공보’가 들어가는 이 특별한 위원회는 “유일하고 참된 살아있는 교회를 희미하고 어



뒷줄 왼쪽부터 허용환 형제, 이원강 형제, 김지에 자매, 마우어 자매, 마우어 장로, 최석구 형제, 이용환 장로

두운데서 이끌어 내어 온 땅 위에 세우기 위해”(교리와 성약 1:30) 1987년에 조직되었다. 즉, 교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활동을 대외적으로 알리고 교회의 교리를 정확하게 전하는 것이 한국 공보 위원회가 하는 일이다. 현재 한국 공보 평의회 의장으로 지역 칠십인 이용환 장로가, 또한 한국 공보 위원회 위원장으로는 최석구 형제가 봉사하고 있다. 그 밖에도 허용환 형제와 이원강 형제, 그리고 김지에 자매와 공보 선교사인 마우어 장로 부부가 주님의 사업을 알리는 일에 앞장서고 있다.

공보 위원회는 작년에 있었던 ‘더 파이브 브라운즈 내한 공연’처럼 큰 모임의 준비는 물론이고 인터넷에 올라온 교회 관련 질문에 답하는 것까지 그야말로 다양한 일을 한다. 장애인 복지 시설에 휠체어를 전달하고, 헌혈 캠페인을 진행하는 것도 공보 위원회의 일이다. 또 교회에 영향력을 미치는 저명 인사들과의 교류도 중요한 업무에 속한다. 신문이나 잡지에 교회에 대한 호의적인 기사가 실리는 것도 공보 위원회의 활동과 무관하지 않다. 그 중에서도 교회와 관련된 오보나 무분별한 비난을 바로잡고, 올바르게 정확한 교회 관련 기사를 신기 위해 미디어 관계자들과 끊임없는 교류를 하는 것이 한국 공보 위원회의 가장 큰 역할이다. 특히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교회 관련 자료들 중 악의적이거나 잘못된 정보를 수정해서 교회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한국 공보 위원회에서는 이 모든 일을 함에 있어 회원들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밝힌다. 홍수처럼 쏟아지는 기사와 인터넷 게시물을 일일이 다 모니터링 한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회원들은 신문이나 잡지, 그리고 라디오나 텔레비전, 인터넷 등에서 교회에 관계되는 기사나 방송을 발견하면 공보 위원회에 연락

을 하고, 여론 주도층 인사와 친분이 있다면 공보 위원회에 그들을 소개하면서 도움을 줄 수 있다. 또한 공보 위원회에서 준비하는 여러 모임에 참석하고 간증을 나누는 것도 공보 위원회를 돕는 방법 중 하나이다.

교회가 우아하게 헤엄치는 백조라면 한국 공보 위원회는 열심히 물살을 가르는 다리다. 수면 아래에서 활동하는 그들은 비록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교회가 성장하고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데 큰 역할을 담당한다. 그 모든 것들을 위해서 한국 공보 위원회의 형제자매들은 늦은 저녁 시간, 모두가 집으로 돌아가는 그대에 교회의 불을 밝힌다. 그들의 얼굴에는 사랑과 행복의 웃음이 가득하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 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처럼 언젠가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빛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때를 위해 한국 공보 위원회는 오늘도 열심히 물살을 가른다. ■

“따뜻한 봉사의 손길”

연 말연시의 들뜬 분위기가 무르익던 2007년 12월 7일, 안타까운 소식 하나가 전해졌다. 유조선에서 원유가 흘러나와 물 맑고 아름다운기로 유명한 태안반도 일대를 덮친 것이다. 일반 툰이라는 어마어마한 양의 원유는 바다는 물론이고 해변과 섬들, 그리고 일대의 모든 생물을 시커멓게 물들이고 말았다. 원유를 모두 걷어내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들지 모른다는 비관적인 전망

이 들려왔다. 하지만 원유를 뒤집어 쓴 채 죽어가는 바닷새들과 삶의 터전이 파괴되어 오염하는 어민들의 모습이 연일 보도되면서 서서히 기적이 일어났다. 전국 방방곡곡에서 일어난 도움의 손길이 태안반도로 몰려든 것이다. 거대한 인간 띠를 만든 자원봉사자들은 매섭게 몰아치는 바닷바람과 코를 찌르는 악취에도 아랑곳없이 원유가 묻은 돌맹이를 닦고 모래를 퍼 날랐다. 그렇게 태안반도로 몰린 자원봉사자의 수가 1월 첫주까지 백만 명이 넘었다. 그리고 그 속에는 우리 후기 성도 회원들도 있었다.

홍성 지방부 서산 지부 회원들은 지난 12월 19일 대통령 선거일에 태안을 찾았다. 일찌감치 선거를 끝내고 모인 회원들은 두 팔을 걷어 부치고 기름 제거 작업에 나섰다. 태안반도 일대의 바닷가는 인접 지역에 사는 서산 지부 회원들에게는 무척이나 각별한 곳이었다. 여름이면 시원한 바다에서 해수욕을 즐겼고, 겨울이면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했던 바로 그 곳이 오염돼서 죽어간다는 사실이 그들은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었다. 김용갑 서산 지부 회장은 직접 본 사고 현장이 텔레비전이나 신문문을 통해서 접한 것보다 훨씬 참혹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앞으로 살아갈 길이 막막한 주민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 위안을 드리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과감히 동참을 했고, 교회에서 배운 대로 지역사회에 봉사하기 위해 기꺼이 참여했다.”고 소감을 전했다.

수원 스테이크는 지난 12월 22일 토요일에 봉사활동을 다녀왔다. 지역 칠십인인 이용환 장로를 필두로 스테이크 내의 6개 와드 지부 회원 63명은 ‘의항리’라는 조그만 항구에서



수원 스테이크 회원들과 함께 기름 제거에 참여한 구승훈 회장(왼쪽)과 지역 칠십인 이용환 장로(오른쪽)

기름 제거 작업을 했다. 평소라면 갈매기들이 날아들고 작은 고깃배가 드나들었을 항구에는 시커먼 기름때만이 가득했다. 밀물과 썰물 때마다 밀려들어서 갯벌과 바위에 달라붙는 기름들은 사고라기보다 재앙에 가까워 보였다. 특히 사고 현장 바닷가는 수원 스테이크 청소년 대회나 신권 지도자 모임으로 몇 번이나 방문했던 곳이어서 그 아픔과 충격이 더했다. 수원 스테이크 회원들은 망설임 없이

기름 구덩이 해변으로 뛰어 들었다. 방파제와 그 밑으로 이어진 바위 곳곳에 묻은 기름을 제거하는 동안 차가운 겨울바람이 무색하게도 회원들의 이마에는 땀방울이 맺혔다. 한편, 길게 늘어진 자원봉사자들의 차량과 해변에 뽀뽀하게 모여 기름을 제거하거나 식음료를 지원하는 봉사자들의 모습은 수원 스테이크 회원들에게도 감격 그 자체였다.

후기 성도들의 따뜻한 도움의 손길은 2008년에도 계속됐다. 서울 강서 스테이크 회원들은 지난 1월 11일 봉사활동을 다녀왔다. 갑자기 날씨가 추워졌음에도 청소년과 초등학교 어린이들까지 포함한 서울 강서 스테이크 회원들은 기름 제거를 위해 비지땀을 흘렸다. 또한 한국 관리 본부 직원들도 지난 1월 19일 태안을 찾아서 막바지 방제 작업에 뛰어들어 모사이야서 18장 9절의 말씀처럼 “...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기꺼이 슬퍼하고, 또한 위로를 필요로 하는 자들을 위로해는” 일에 동참했다. ■



태안반도 기름 제거에 참여한 서울 강서 스테이크 회원

캐나다 밴쿠버 한인 성도들의 음악 노변의 모임



훨씬 많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한인들끼리만의 모임을 갖는데, 음악 노변의 모임도 그 중 하나였다. 먼 타국에서 같은 나라 사람, 게다가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분명 축복이고 기쁨이다. 한인 성도들은 서로 단합하고 의지할 때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고 영적인 감동이 더해진다고 입을 모은다. 그런 사랑과 영적인 느낌이 있었기에 밴쿠버 스테이크 코키털람 와드에서

지난 2007년 11월 17일 캐나다 밴쿠버의 밤하늘에는 아름다운 음악 소리가 울려 퍼졌다. 늦가을의 정취를 물씬 느끼게 했던 이 음악 소리는 한국인 후기 성도들이 준비한 음악 노변의 모임에서 흘러나온 것이었다.

현재 캐나다 밴쿠버에는 150여 명의 한인 성도들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 중 90명 정도가 활동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한국말로 성찬식과 주일학교를 진행하는 ‘한인 그룹’ 모임에 참석하는 수는 30여 명쯤 된다.

이번 음악 노변의 모임도 이들 ‘한인 그룹’의 주최로 열리게 되었다. 물론 현지인과 함께 어울리며 교회 활동을 하는 시간이

진행된 음악 노변의 모임을 성공리에 치를 수 있었다. 100여 명의 한국인은 물론이고 현지 회원들까지 모인 이 모임에서는 오르간 독주, 바이올린 독주, 합창, 중창, 현악 앙상블 등 다양한 음악 순서가 참석한 이들의 심금을 울렸다. 음악 순서 중간에 말씀을 전한 권찬태 장로와 김정애 자매는 캐나다에서 봉사 중인 부부 선교사다. 특히 김정애 자매는 음악 선교사로 부름 받아 이번 음악 노변의 모임을 계획하고 준비했다. 권 장로는 “이 모임에서 울려 퍼진 화음의 메아리와 사랑의 열기가 한인들의 단합을 이끄는 계기가 되길 소망합니다.”라고 박찬 간증을 전했다.



지역 단신

주: 지역 단신에 대한 자세한 사항과 더 많은 정보는 웹사이트 www.lds.or.kr의 '회원과 방문자를 위한 소식'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 강서 스테이크 <김연학 기자>

지난 2008년 1월 5일 스테이크 센터에서 청소년 42명과 청소년 역원 등 6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일일 청소년대회**가 열렸다. 청소년들의 친목과 단합, 우정을 목적으로 한 “도미노 블록 쌓기” 활동은 나이별로 6개 팀으로 나누어 진행되었으며, 청소년들은 스스로 작품을 구상하고, 설계하고 연결하였다. 최초의 칩을 넘어뜨리면서 전체 도미노가 완전히 넘어지는 그 순간, 모든 청소년들과 회원들은 하나가 되어 함성과 박수갈채를 보냈다.

지난 2007년 12월 23일 서울 강서 스테이크 센터에서 청소년과 부모를 위한 **“진학지도 세미나**”가 열렸다. 청소년들과 그 부모들이 초대된 가운데 130여 명이 참석하였으며, “효과적인 시간활용 방법” 등에 대한 세미나가 있었다.

순천 지방부 <조연화 기자>

지난 2007년 12월 15일 순천, 여수, 광양 지부의 청년들이 모여 청년 우수작 발표를 겸하여 **청년 창립 기념행사**를 가졌다. 이날 모임에서는 각 지부의 청년 회장단과 청년가 “덕으로써 네 생각을 장식하라”는 주제로 그간의 경험을 간증으로 나누었다.



서울 남 스테이크 <형상일 기자>

지난 2007년 12월 23일 서울 남 스테이크 센터에서는 예년과 같이 **크리스마스 기념 음악회**가 열렸다. 서울 남 스테이크 합창단과, 봉천 와드 회원들, 그리고 온누리 합창단, 인천 위트니스 합창단과 함께 특별 초대 손님인 바이올리니스트 양효우 형제의 공연이 있었다.

안양 스테이크 <황미주 기자>

안양 스테이크의 2007년 마무리는 초등회 어린이들의 열정으로 장식되었다. 12월 15일 토요일 오후 네 시에 스테이크 센터인 산본 와드에서 2007년 안양 스테이크 **초등회 예술제**가 열린 것이다. 이날 모임은 스테이크 내 다섯 개 와드의 초등회 어



린이들이 친구들과 부모님들 앞에서 그동안 준비해온 작품을 공연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전주 스테이크 <이나나 기자>

지난 2007년 12월 1일 전주 스테이크 센터에서 **청녀 창립 기념행사**가 열렸다. 이날 모임에서는 “신앙 담는 컵”이라는 주제로 컵에 물감을 이용해 자신이 그리고 싶은 그림들을 그려 넣는 활동을 했다.



지난 2007년 12월 15일 전주 스테이크 센터에서는 **대제사 부부 모임**이 있었다. 전주 스테이크 노래패의 공연과 림보와 풍선 멀리 날리기 등의 다채로운 모임으로 진행된 이날은 대제사 부부들에게 모처럼의 즐거운 시간이었다.

역원 및 단위 조직 명칭 변경

영동 스테이크

수지 와드 감독: 황광범(전임: 정해경)

인천 스테이크

가정 와드 감독: 이종복(전임: 황재식)

새로 부름 받은 선교사

새로 부름 받은 선교사 286기 8명/해외 4명



강소피아 자매
서울 북 스테이크
신촌 와드
대전 선교부



조현아 자매
인천 스테이크
가정 와드
대전 선교부



길한나 자매
인천 스테이크
부평 와드
부산 선교부



차요나 장로
대구 스테이크
상인 와드
대전 선교부



김성대 장로
대구 스테이크
경산 와드
서울 선교부



박병천 장로
서울 강서 스테이크
부천 와드
뉴욕 남 선교부



김태연 자매
서울 동 스테이크
의정부 와드
대전 선교부



박종한 장로
서울 영동 스테이크
오륜 와드
일본 삿포로 선교부



이슬기 자매
수원 스테이크
곡반정 와드
대전 선교부



배상화 장로
대구 스테이크
상인 와드
뉴욕 남 선교부



전해린 자매
서울 스테이크
삼정 와드
부산 선교부



송가영
서울 강서 스테이크
신월 와드
템플 스퀘어